



원형론적 시각에서 분석한 동북아 삼국의 역사와 미래

김용운 · 진순신의 《한·중·일의 역사와 미래를 말한다》

문학사상사/A5변형/300면/8000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둘다

쓴다. 하지만 일본인은 젓가락만 이용하고, 중국인은 젓가락을 주로 쓰지만 간혹 숟가락도 사용한다. 별 의미 없을 것 같은 이 작은 차이가, 문명비평가들에게는 큰 이야기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일본 민족박물관 관장 이시케 나옴치 교수는 수저 사용의 차이를 들어 “한국은 모든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편의주의적 사고로 일관하며, 중국은 그 중간쯤, 그러니까 그 사용이 애매한 상태”라고 분석한다.

혼인문제에 관한 삼국의 문화차이도 엇비슷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일본은 옛적부터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이 허용돼 왔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와 결혼하는 경우가 단적인 예다. 하지만 조선은 동성동본을 엄하게 금지했다. 중국의 경우,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기피하기는 했지만, 조선처럼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지극히 일상적인 차원에서 관찰되는 문화현상에 대한 분석이지만, 이를 토대로 문명비평가들은 한·중·일의 문화적 특징을 ‘엄격, 반(半)엄격, 자유’로 정의하고 있다.

고대의 사회단위가 민족원형 결정

김용운과 진순신이 동북아 삼국의 문화적 원형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미래를 전망한 대담집 《한·중·일의 역사와 미래를 말한다》(문학사상사)를 펴냈다. 이 책은 다른 무엇보다 김용운과 진순신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만나 동북아 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수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김용운은 국내독자들에게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인물. 일본에서 문명을 날리고 있는 진순신 역시 국내에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소설가다. 재미

있는 것은 두 사람 다 일본태생이라는 점이다. 김용운이 1927년 도쿄생이고, 화교인 진순신은 1924년 고베생이다. “삼국의 역사와 문화에 정통한 김용운·진순신 밀레니엄 대담”이라는 이 책의 부제가 잘 어울리는 출신 배경인 셈이다.

이 책에서 김용운은 예의 민족원형의 시각에서 동북아 삼국의 문화를 분석한다. 민족원형이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의 그 ‘세살 버릇’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민족원형은 고대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김용운은 특히 고대의 사회단위가 민족원형을 결정지었다는 입장이다. 김용운은 각 민족의 사회단위를 구체적으로 “한국은 곡신(谷神)의 현빈(玄賓)의 실재를 실감할 수 있는 혈연마을이고, 일본은 수리를 이용한 환호집락(環濠集落), 그리고 중국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읍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지역의 촌(村)”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단위의 차이는 각 민족이 내세우는 덕목의 변별성을 가져왔다. 여러 성씨가 함께 모여 사는 방언적 성격의 취락인 중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의(義)·인(仁)·신(信)’의 윤리를 강조했다. 한국은 혈연중심이다 보니 ‘효(孝)’를 최고로 내세웠고, 일본은 번(藩)을 중심으로 ‘충(忠)’을 중시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더라도 각 민족의 기본철학이 무엇인지 명백해진다. 결국 한국은 ‘명분’에 사로잡혔고, 중국은 ‘현실주의’적이며, 일본은 ‘명분과 실리’의 조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민족원형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도 연역적으로 해석되는 법이다. 김용운은 일본의 근대화가 한국이나 중국보다 빨랐던 원인을 역시 민족원형 입장에서 분석한다. 이 대목에서 김용운과 진순신이 주목하는 것은 ‘화(和)’다. 국민국가 형성이 빠르

게 진행된 민족이 근대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성공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일본의 민족원형은 상황에 잘 적응하는 ‘화중심사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통성에 대한 고집이 너무 강해 국민적 화합을 이루지 못했다. 정통성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 차별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화문명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이 보장될 때 화합이 가능했다. 하지만 근대 초 이민족의 정복왕조가 번갈아 등장하는 바람에 중국은 끝내 화합에 실패했다.

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전제조건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김용운과 진순신은 ‘아시아공동체’ (AU) 건설을 주창한다. 이 주장이 허황되게 들리지 않는 것은, 진순신의 말대로 “동양 삼국의 친근감은 언어나 문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 이틀테면 요리, 도자기, 바둑, 장기 등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아시아공동체 건설을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과거청산이라는 걸림돌이 있어서다. 김용운의 적절한 지적대로 “우선 일본이 주변국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일본의 경제력이 이 지역의 변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아시아 공동체 건설은 그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이 일정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담을 나눴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될 만하다. 특히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편문화’의 가능성을 논한 점은 상찬할 만하다. 세계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용운의 원형론이나 ‘아시아공동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이 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논평이 기대된다. — 이권우 기자